

출판계 움직임

실을 옮겼다. 전화는 393-6053~4.



林仁秀 사장, '서울시文化賞' 수상

翰林출판사의 林仁秀사장(55)이 87년도 '서울시 문화상'(출판부문)을 수상했다.

林사장은 1961년 한림출판사를 창설, 그동안 한국관계 외국어판 도서와 민속문화·예술관계 도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해 한국문화의 해외선양 및 시장개척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시상식은 구립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제10회 '현대아동문학상'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회장 李在徹)가 마련한 제10회 '현대아동문학상'이 동시작가 宣勇씨(부산 문화방송·월간 '어린이문예' 주간)와 동화작가 權純河씨(충남 온양고교 교사)에게 주어졌다. 수상작품은 선용씨의 동시집 '뫼뫼'과 권순하씨의 장편소년소설 '날개 찢긴 나비'. 시상식은 1월23일 오후 2시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베풀어진다.

'청소년문화' 창간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회장 羅春浩·예림당 대표)는 부정기간행물 '청소년문화'를 88년 1월호로 창간했다.

46배판 32면으로 발행된 '청소년문화' 창간호는 창간기념 특집으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태'(김승철·시립남산도서관), 청소년도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조대현 안건혁·이한진·김연균)를 다룬 외에 '청소년도서의 문제점'(이중환), 청소년도서 세미나 증계, 서점가 탐방기 등을 실고 있다.

'한국의 산' 등 출판기념회

'한국의 자연'시리즈 집필위원회(위원장 정영호)는 동 시리즈 전15권 중 1차로 출간된 '한국의 산'(김근원·김상훈), '한국의 새'(윤우부), '한국의 동굴'(석동일) 등 3종의 합동출판기념회를 1월15일 오후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동 위원회 연

락처는 서울 동작구사당동 1042-19 태광빌딩 401호(587-2121).

'出協 40年史' 발간

출협은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大韓出版文化協會40年史」(1947~1987)를 펴냈다. (관련 기사 26면)

크게 通史와 分類史로 나누어 구성된 이 책은, 해방 이후 사회격변속에서의 출판계의 성장과정을 편년체로 서술하는 한편, 그동안 우리 출판의 역사를 형성해온 출판정책, 법제, 유통, 독서운동, 국제교류, 납본제도 등 12개항의 사업별 분류사를 다루고 있다.

자료편과 편람으로는 출판사명부, 연표, 통계, 주요 건의문 등을 수록했다.

(46배판 / 628면 / 10,000 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지하1층에 새로 문을 연 '한가람문고'.

강남에 '한가람문고' 개점

서울종합터미널주식회사(대표 이사 申連浩)는 매장규모 250평의 서점 '한가람문고'를 구립 19일 개설했다.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에 자리잡은 한가람문고는 약10만권의 도서를 확보, 강남 부도심권의 도서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컴퓨터 코너, 문방구, 스낵코너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전화번호는 535-1600~1603.

'뉴코아문고'도 개점 서둘러

강남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뉴코아 백화점 5층에도 대형서점이 새로 들어선다.

주식회사 뉴코아(대표이사 김의철)가 지난 해부터 개설을 추진해 오는 '뉴코아문고'는 1월16일개점점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약 300평의 매장규모에 25만권의 각종 도서를 갖추으로써 '강남제일'의 대형서점이 되리라고. 이 뉴코아문고가 개점하면 기존의 동화사(지하철 강남역 지하 1층), 한가람문고와 함께 강남문화권의 중추로서 구실할 것이 기대된다.

뉴코아문고의 전화는 532-3300 구내 511~512.

'홍익서점' 180평으로 확장

신촌 로터리 연세대쪽 어귀에 자리잡고 있는 홍익서점(대표 박인철)이 구립 19일 매장을 180평으로 확장, 개업했다.

이미 있던 지하 및 지상1층 매장을 4층까지 확장, 새로이 단장하는 한편 5층에는 휴게실도 마련했다.



'인쇄문화회관' 준공

인쇄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인쇄문화회관'이 마침내 준공, 지난 12월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2-26에 세워진 인쇄문화회관은 대지 21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건평이 614평에 이른다.

지하층은 인쇄관계 단체의 창고와 주차장, 기계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1층은 상설전시장, 2층과 3층은 인쇄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의 사무실, 4층은 강당으로 활용된다.

회관의 건축비는 기존 충무로회관의 매각대금과 전국 인쇄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됐는데, 기부금은 모두 3억1천4백여만원이 모아졌다.

'한국의 族譜展' 개최

한국출판매주식회사(대표 여승구)는 제9회 고서경매 전시회를 1월23일~2월6일까지 2주간 갖는다.

한편 기간중 특별전으로 '한국의 족보전'(이양재씨 소장품)도 개최한다.

文學春秋社로 상호 변경

중전의 三慶출판사가 文學春秋社(대표 任定彬)로 상호를 변경, 구립 10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효제동 145 해암빌딩 203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763-3311.

安岩文化社 주소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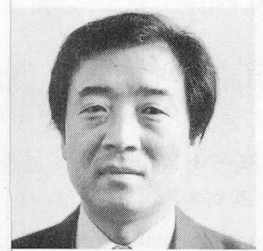
도서출판 안암문화사(대표 李昌植)는 사무실을 서울 중구 신당2동 379-10 서영빌딩 201호로 옮겼다. 새 전화는 252-4334, 253-0491.

'대한교과서' 金弼植 사장 별세

대한교과서(주)의 金弼植사장이 지난 12월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李丁洙씨, 문공부장관 표창 받아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의 李丁洙총무부장(42)이 구립 20일 李雄熙문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李부장은 출판금고 설립 초기부터 16년째 근무하면서 동 금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李丁洙씨

'한길역사·사회과학강좌' 개막

한길사(대표 金彦鎬)가 마련한 제13기 '한길역사강좌'가 「일제 식민지시대 문학운동사」를 주제로 1월14일~3월1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강사는 문학평론가 任軒永씨.

한편 네번째 '한길사회과학강좌'도 오는 1월25일부터 3월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 주제는 「중국혁명과 모택동사상」(고려대 서진영교수). 문의처는 922-9523 한길사 편집부.

'저작권 에이전시' 13개 업체 허가

새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로, 1월8일 현재 13개 업체가 문공부장관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업체는 다음과 같다.

- ▲ IPS(민영빈·738-5431)
- ▲ 김·송합동법률사무소(김평우·274-6788)
- ▲ 신원 에이전시(김상형·335-6388)
- ▲ 인터코 저작권기획(정동운·785-1021)
- ▲ 서울문화기획(조세형·739-5095)
- ▲ 범한서적(김윤선·733-2011)
- ▲ 문학사상사(임영빈·736-9467)
- ▲ 영문사(박병조·756-7790)
- ▲ (주)월포(정광남·273-5300)
- ▲ 현대정보사(이석호·735-8093)
- ▲ 일본출판정보사(최명호·566-8168)
- ▲ 한국이데아 에이전시(김승환·730-8101)
- ▲ 연합출판진흥(이선배·332-7066)



1월6일 출협 강당에서 베풀어진 '출판인 신년교례회'.

출판인 新年交禮會 가져

88년도 출판인 신년교례회가 1월6일 오후 6시 출판회관 4층 강당에서 베풀어졌다.

출협이 마련한 이날 모임에는 200여명의 출판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 交禮했다.



'출판저널'의 송년모임이 구립 11일 성황리에 베풀어졌다.

'출판저널' 送年 모임 성황

'출판저널'의 송년모임이 구립 11일 오후 6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베풀어졌다.

'출판저널'의 제10호 출간을 축하하는 뜻을 겸한 이날 모임에는 본지 편집·서평위원을 비롯한 학계·문화계 인사와 출판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 「출판저널」의 발전을 기렸다.

'저작권심의위' 사무실 이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 종근당빌딩 506호로 사무